

# 민주당 '전대 열차' 출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월 새 지도부 선출...전준위, 첫 회의서 6개 분과위 설치 결정 비대면 전대 도입 논의...대권 주자 당헌·당규 개정 언급 안 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의원)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 지도부 맛이를 본격화했다. 특히 온라인 전당대회 도입과 관련해선 언택트(비대면) 전당대회 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는 9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 총무, 조직, 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강령정책 등 총 6개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장 대변인은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 여

부와 관련한 당헌·당규 손질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헌·당규 사항이니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전당대회 도입 여부에 대해선 "코로나19 국난극복이 중요한 사항이니 언택트 전당대회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 전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전대는 지도부의 선출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전준위에서 뽑힌 지도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당이고 시대변화에 맞는 정당 정책, 여러 가지 당 기구, 당원들의 마음가짐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보다 현대화된 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전당대회"고 강조했다. 또 "정당이 안정돼서 하나의 흐름과 역사를 쌓아가는 전당대회가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저는 인터넷 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랜선이라는 방식이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있지 않다. 그런 방식을 아마도 우리가 도입해야 될지 모르는 전당대회라고 보인다"면서 "다행히 플랫폼 구축을 잘 해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다양한 전대 방식을 시사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앞으로 2년 우리 민주당의 역할과 역할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하고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 있다"면서 "단기적 사안이나 현안에 국한됨이 없이 100년을 기획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논의를 펼침과 동시에 우리당의 제도와 규정에 코로나19 이후 사회 저변에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일을 선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의 가치를 구현한 공천 시스템이 21대 총선의 승리를 불러왔듯이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수평적 리더십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의와 평등,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김부겸 "당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 배수진

### 민주당 전대·대선 경선 구도 파장 예고...이낙연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당권 도전 입장과 함께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 길을 막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 의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당내 대권·당권주자들은 물론 주류 진영의 의사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 측은 당내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인 이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전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차기 당 대표 과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의 전대 불출마 당위

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힌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여론내 견제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대권 잠룡인 김 전 의원이 '배수진'을 치고 이른바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나섬에 따라 8월 전대는 물론 당장 대선 경선 구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 측에서는 이러한 당내 기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부 세력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이전 총리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묵묵히 제 길을 가며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미래 등에서 제기된 이 의원의 당권 도전 불가 주장도 극히 소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일부 세력의 이같은 인위적 움직임은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SNS 등에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민주당 전대가 당권·대권주자의 각축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물밑 세력결과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원 구성 여론전

### 민주 "과반의석이 민심" vs 통합당 "민을 곳은 언론 뿐"

여야 원내대표는 9일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이어지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언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7석을 몰아 준 민심을 봤을 때 과거 원 구성 협상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여당에 안정된 과반의석을 준 민심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점을 거론,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언론의 해석을 경계했다고 한다. 그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라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먼저 특위를 제안했을 때는 말이 없다"고 이번엔 다시 제안한 것을 "시간 끌기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 넘기면 원내대표 책임"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원이 요구하고 국민이 그렇게 엄청난 성원을 보냈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끌려다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이번 주를 넘기면 아무리 의석을 몰아줘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당으로 국민에게 비칠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석 열세에 몰린 통합당은 권태와 질책을 무시한 여당의 일방통행을 부각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강요나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관례나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을 제외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 꼭 좀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亞문화전당 위탁운영 연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9일 "1호 법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위탁운영 연장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기간이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2020년 4월13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아시아문화원 위탁은 시기상조"라며 "문화전당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현 운영체계의 5년 연장안을 담은 아특별 개정안이 최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용빈 '군 공항 이전 국방부 책임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9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에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

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부대양어' 방식을 보완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기부대양어' 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b>"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b></p>	<p><b>의료시설</b>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곡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b>"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b></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